



상장법인 2004년 이후 경영실적 줄곧 즉쭈더니...

올들어 부쩍 좋아졌네

조선·철강·기계, 굴뚝업 호전 이끌어

건설은 정부 부동산 규제에 순익 감소

상장법인의 올 상반기 실적이 3년 만에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추정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15개 기업의 올 상반기 매출은 313조7천6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6조8천374억원과 24조3천9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이후 줄곧 악화일로로 걸던 기업실적이 3년 만에 호조세로 전환하는 셈으로, 이는 올들어 급등한 증시가 단순히 시중 유동성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로 여겨진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으며, 2005년 상반기에도 전년비 11.6%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상반기 실적이 추경된 20개 업종 중 실적 호전이 두드러진 곳은 무엇보다 조선, 기계, 철강 등의 '굴뚝업종'이다. 전 세계의 원자재와 기계, 플랜트 등을 독점하며 '자원의 불확실'이 된 중국과 동종 특수를 마음껏 누리던 이들 업종의 기업 중에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이익 증가세를 보인 곳이 넘쳐난다.

조선, 자동차기업이 포함된 운수장비업종은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2.8% 늘어났으며 추산됐는데, 이중 현대중공업(243.5%), 삼성중공

업(314.9%), 대우조선해양(164.5%) 등은 순이익이 10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STX조선의 경우 순이익 증가율이 무려 508.4%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업종은 다소 저조한 편이어서 현대차 순이익이 6.2% 늘어나고 기아차는 72.7% 감소하지만, 쌍용차의 흑자 전환 성공과 더불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이 일본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계업종도 이익이 58.8%나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 세계 플랜트시장을 석권하는 두산중공업(930%)과 STX엔진(228%), 한국코트렐(105.3%), S&

TC(61.2%) 등의 이익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22.2%의 이익 증가율을 보이는 철강업종에서는 포스코가 순이익이 34.6% 늘어 상반기에만 2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달성하고, 대양강속(1,180%), 휴스틸(222.4%) 등이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반면 전기전자, 음식료, 건설 등의 업종은 올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이 작년 상반기에 미치지 못했다.

6월들어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상반기 내 D램과 LCD 가격의 추락이라는 악몽에 시달린 전기전자업종은 대표기업들의 이익이 대부분 감소하거나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닉스(-42.6%)는 물론 삼성전

자(-12%), 삼성전기(-47.7%), 삼성SDI(적자전환) 등 삼성 계열사의 실적도 저조하며, LG전자도 자회사인 LG필립스LCD의 대규모 적자로 순이익이 미미할 전망이다.

음식료업종은 원재료인 곡물 수입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9.7% 감소할 전망이다. CJ(-58.9%), 롯데제과(-63%), 롯데칠성(-24.2%) 등의 실적 악화가 뚜렷하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타격을 받은 건설업종은 현대건설(-16.5%), 코오롱건설(-69.8%), 현대산업개발(-30.95) 등의 이익이 이리저리 전체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비 13% 감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시판 禪食 믿을게 못되네

'유아식' 둔갑 판매... 식중독균 검출도

식사 대용식품인 선식(禪食)제품을 어린이용 식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선식을 특수용도의 영·유아용 식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소 5곳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6곳 등 모두 11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식은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으며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이 경원대 박종현 교수팀에 의뢰해 2006년 5월17일~11월30일 실시한 '선식 등 기타 곡류가공품 중 유해세균 오염실태' 조사에서 비록 미량이지만 유해 미생물인 사카자균은 물론 식중독균인 하나인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특별 위생점검 차원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선식 제조가공업소 18곳의 29개 선식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등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한 4개 선식제품 등 모두 7개 선식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여름철 선식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업 하반기 채용전망 '맑음'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하는 가운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채용규모를 늘리며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전망이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업종별 매출 10대 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112개와 상시 종업원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330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86.6%, 중소기업 74.8%가 채용계획을 확정했다.

대기업의 경우 '채용을 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76.8%, '하지 않겠다'는 기업은 9.8%, '미정'이라고 밝힌 기업은 13.4%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하반기 채용을 실시하겠다'는 기업이 70.0%에 달했으며, 미정이 25.3%, '채용 않겠다'는 기업은 4.8%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37.0%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올해 채용계획을 확정짓지 않은 기업까지 합치더라도 이보다 적어 올 하반기 중기 채용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직원 자발적 퇴사, 회사 손해"

중소기업 10개 중 9개 기업이 직원의 자발적인 퇴사로 기업에 손실을 가져오며 과장 및 대리급 직원의 퇴사가 치명적이라고 답했다.

2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종업원 수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48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2.4%가 직원의 자발적인 퇴사가 회사에 손실을 가져온다고 답했다.

특히 그 손실을 금전으로 환산할 경우 '퇴사한 직원이 받는 연봉의 2배'라고 답한 기업이 30.7%로 가장 많았으며, '퇴사 직원의 연봉 정도'(17.2%), '퇴사 직원 연봉의 3배'(17.0%), '퇴사직원 연봉의 1.5배'(16.4%) 등의 순이었다.

직원의 자발적인 퇴사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으로(복수응답) '후임자의 업무 노하우 숙지 및 교육을 위한 투자, 이로 인한 업무의 공백기간'을 지적한 답변이 73.6%로 가장 많았으며, '팀 및 조직 분위기 와해'가 58.6%, '퇴사한 직원이 관리하는 고객, 거래처, 관계사 등 인맥이 끊김'이 38.5%, '경영사회의 회사정보 노출 위험' 34.0%, '인력충원에 필요한 채용 비용 발생' 24.0% 등이 있었다. /연합뉴스

현대차 엘란트라·쏘나타

미국서 '연비 좋은차' 1위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와 쏘나타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준중형·중대형 차 가운데 연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국(EPA)이 올해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차종별로 연비를 조사한 결과 엘란트라와 준중형(Midsized) 부문에서 쉐란(3.79ℓ) 당 도심에서 28마일, 고속도로에서 36마일을 달러, 최고의 연비를 보였다. 경쟁차종인 폰티악 바이브와 도요타 매트릭스는 도심 29마일, 고속도로 34마일로 엘란트라를 뒤를 이었다.

중형(Full-Size) 차 부문에서는 현대차의 쏘나타가 쉐란당 도심 24마일, 고속도로 33마일로 도요타의 아발론(22.31마일)을 제쳐 고유가 시대에 가장 타기 좋은 중형차로 뽑혔다.

소형차 부문에서는 도요타의 야리스(34.39마일), 혼다의 시빅(30.40마일), 고급 세단에서는 아우디 A3(25.32마일), A4, 렉서스 IS250(이상 24.32마일)이 연비효율이 좋은 차로 선정됐다.

스포츠카에서는 폭크스바겐의 GTI(25.32마일), 이오스(23.31마일)가, 미니밴에서는 마쓰다 5(21.26마일), 닷지 캐러밴(20.26마일)이 최고로 빨랐고 SUV로는 도요타 RAV4(2WD)가 도심 및 고속도로에서 각각 24.30마일로 두각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업 체감경기 호전

기업 경기·자금 사정 등 실사지수 5년만에 최고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경기와 자금 사정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체들의 경우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내 319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와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6월달의 제조업 업황 BSI는 96,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83으로 전월대비 각각 10포인트와 8포인트씩 상승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 2002년 2분기 이후 5년만에 최고치로, 당초에는 85이었으나 실제로는 전망치보다 11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분야별로는 생산 BSI(95→114), 가동률 BSI(91→108)가 급증한 가운데 매출 BSI(108→109)도 한달전에 비해 소폭 증가해 제조업 업황 개선을 이끌었다.

자금사정 BSI는 제조업이 87, 비제조업이 89로 전월대비 7포인트와 9포인트씩 상승했다. 이와함께 7월의 BSI 전망도 생산 증가(99→112)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업황 전망 BSI(85→94)와 비제조업 업황 전망 BSI(74→88) 모두 상승하는 등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자금사정 전망 BSI도 제조업(81→87)과 비제조업(82→92) 모두 개선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BSI가 아직도 기준치인 100이아지만 지역내 주력업종인 철강과 가전부문의 업황 개선으로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포털 사회적 책임 어떻게?

인터넷 포털의 폐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일 국회에서 열린 '포털의 사회적 책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란 주제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한도·조건 상황따라 바뀐다

금감원, 은행 등 LTV·DTI ±10%P내 조정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LTV와 DTI를 상하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감독 규정에 명시된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 왔다.

또 모기지보험 취급 허가 관련해서도 LTV 산정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해 10년

이상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조건으로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가치의 20% 이내에서 LTV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아울러 금감위가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한 주택대출 규제의 세부 내용을 이밖에 감독 규정에 명문화함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 임원 해임 권고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감위는 3만원 이하의 비접촉식(NOCV)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가맹점의 소비자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도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에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투자신탁회사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투자할 때 BIS 위험가중

▲LTV(주택담보대출비율)=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말한다. LTV가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12%만 대출할 수 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치를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낮은 은행의 SOC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7월 중의결·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6월수출 323억9,100만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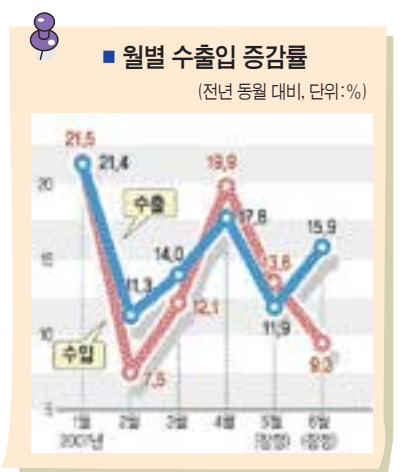
지난해보다 16% 증가

6월 수출이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세웠다.

산업자원부가 2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이달의 수출액은 323억9천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증가했고 수입은 284억4천500만 달러로 9.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6월의 수출실적은 지난달 기록한 월간 사상 최고치(312억5천만 달러)를 한달만에 추월한 것이다.

아울러 6월 무역수지는 39억4천600만 달러 흑자로, 51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면서 월별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늘어난 1천781억4천800만달러였고 수입은 13.7% 증가한 1천697억5천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61억 달러)보다 23억달러 가량 증가한 83억9천600만달러였다.

수입의 경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격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대비 각각 0.6%, 2.5% 감소했다. /연합뉴스

**“성장 정체·미래 불확실
고객으로부터 해답 찾아라”**

삼성 유종용부회장 고객중심 강조

삼성전자 유종용 부회장은 2일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미래가 불확실해질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고객'으로부터 해답을 찾고, 고객 중심의 제품과 사업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이날 발표한 월례사에서 "고객은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로 정보와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요구조건도 까다로워졌다"며 "과거에는 가격과 품질만 좋으면 됐지만, 지금은 ▲차별화된

부가기능 ▲브랜드와 디자인 ▲차별화된 서비스 ▲종합적인 솔루션까지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회장은 "지금 삼성전자의 주된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 제품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회장은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과 시장을 다시 정의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하는 한편, B2B 등의 신시장도 적극적으로 확보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제성씨엔엠	신입·경력직 영업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4	02-546-7117
이유헌	(주)이유헌 사보넌 신입/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4	02-554-0851
에스디엔씨 광주북물류관리사업소	전기시설관리 및 수/변전설비 관리 사원	1800~2000	1800~2000	07/05	062-571-7113
㈜삼일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웹디자이너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7/05	062-959-0031
씨에이치솔루션(주)	[주5일]SK텔레콤 광주CRM센터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7/06	010-3211-6291
제이티에스(주)	광주서출문선 유지/보수 요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7/06	062-365-6465
월드투어	예약실/관리직/피티플래너2 남/녀 사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7/06	062-251-7800
한국쓰리엠(주)	각부문별 사원(엔지니어/사무직/생산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6	031-359-2003
한국알프스	2007년 정규직 경력/신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8	062-950-2112
㈜케이씨씨	2007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8	02-3480-5130
LG기드(주)	상담직 부문 사원(광주)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13	062-605-7030
카스(주)목포지점	생산/품질관리직 및 생산직 경력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55-337-1651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2007년 분야별 정규 영업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62-524-6900
㈜국보수산	회계/사무직 사원 [과정급이상]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7/20	061-726-193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